

강제 결혼 앞둔 11살 소녀...네티즌 공분



11살에 불과한 소녀가 20대 남성과 강제 결혼을 앞둔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13일 영국 일간지 메트로

는 이란에서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동영상 하나를 소개했다. 이 영상은 22세 남성과 결혼을 앞둔 11세 소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 속 소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동의 하에 (결혼을) 한다." 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주위에서는 이를 축복하는 듯 박수로 환호했다. 영상 속 남성은 성직자로 알려졌으며, 일부 언론은 영상 속 소녀가 9세, 남성이 33세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 트위터 사용자는 "어린 신부" 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는 매우 슬픈 장면" 이라면서 "그저 또래 친구들과 놀이를 즐기는 11살 소녀와 결혼하려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짓" 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어린아와 결혼하려 하는 것은 성폭행과 다름없다" 고 덧붙였다.

이란에서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여자아이는 13세 이상, 남자아이는 15세 이상일 때 결혼이 허락된다. 그러나 양가 부친 또는 조부의 허락 및 판사의 동의가 있다면 더 어린 나이의 자녀도 강제로 결혼을 시킬 수 있다.

이란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후 현재까지 약 4만3,000명의 10~15세 '어린 신부' 가 결혼식을 올렸다. 어린이, 특히 여자아이의 조혼에 반대하는 사회단체 측은 실제로 강제 결혼을 올린 여자아이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에 따르면 이란의 미성년자 여자아이 중 17%가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쟁 중에 싹튼 사랑... 50년 만에 감동 재회

월남전에서 만난 미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이 50년 만에 극적으로 재회한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1968년 월남전 당시 22살이었던 켄 리싱(Ken Reesing)은 베트남 남부 도시 비엔호아에 있는 미군 기지의 물류 서비스 센터에 파병됐다. 그는 주말이면 기지 내 클럽을 찾곤 했는데, 그곳에서 바텐더로 일하는 베트남 여성 투이란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그녀 또한 그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둘은 연인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1969년 9월 켄이 미국으로의 복귀 명령을 받으면서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다. 켄은 그녀에게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자고 청했지만, 그녀는 가족을 떠날 수 없다고 답했다. 켄은 떠나기 전날 빈에게 1번~50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는 편지 봉투 50장을 건네며 "50번째 편지 봉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오겠다." 고 약속했다.

빈은 날마다 미국에 있는 켄에게 편지를 부쳤고, 50장의 편지 봉투는 채 두 달도 안 돼 바닥이 났다. 이후에도 빈과 켄의 편지 왕래는 수년간 이어졌다.

1975년 월남전이 끝나자 켄은 베트남으로 가려고 했지만

만 가족들이 완강히 말했다. 켄은 빈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지 못한 탓에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빈과의 연락이 끊겼지만 켄의 마음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내내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몇 십 년 동안 빈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애썼지만 허사였다. 그러던 중 몇 달 전 호치민에 사는 베트남계 미국인인 로버트가 그의 소식을 듣고는 돕겠다고 나섰다. 로버트는 소셜네트워크의 도움으로 드디어 지난 6월 빈을 찾아내고 그녀의 집이 있는 비엔호아를 방문해 켄의 과거 사진을 보여 주었다. 빈은 50년 전 연인의 이름과 모습을 기억했다.

마침내 지난 12일 켄이 오하이오주에서 호치민 편선넷 공항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50년 만의 재회했지만 한눈에 서로를 알아보고 뜨겁게 포옹했다. 한마디 말조차 없었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한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현재 빈은 이혼 후 딸과 살고 있으며, 켄 역시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뚜렷한 계획은 없지만, 모든 것을 순리에 맡길 것" 이라고 전했다.

숲으로 변신한 축구장... 기후변화 경각심 위해

오스트리아의 한 축구장이 거대한 숲으로 변했다.



지난 8일 오스트리아 케른텐의 주도인 클라겐푸르트에 있는 한 축구장에 거대한 숲이 조성됐다.

이 축구장이 300여 그루의 나무가 모인 숲으로 변신한 배경에는 스위스 예술가 클라우스 리트만이 있다.

리트만은 '숲을 위해-자연의 끝없는 매력' (FOR FOR-EST-the Unending Attraction of Nature)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통해 숲의 중요성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축구장을 숲으로 변신시켰다.

그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 '숲을 위해' 프로젝트

는 자연을 인지하고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면서 "이 일이 자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기념비적인 프로젝트가 되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리트만이 축구장을 숲으로 개조하는데 사용한 나무 중 일부는 무게가 6t에 달할 만큼 거대하다. 대부분 유럽 대륙 본토에서 자라는 나무를 사용했으며, 이러한 나무가 모인 축구장은 이전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청량하고 푸르른 기운을 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10월 27일까지 계속된다. 리트만은 프로젝트가 끝난 뒤 나무들을 축구장 인근 공원으로 옮겨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데 쓸 예정이다.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